

“다른 유니폼은 생각하지 않았다”

KIA FA투수 임기영, 3년 총액 15억원 재계약

“KS 우승반지 놓쳤지만 기회는 또 있다” “부족한 점 보완 내년 ‘V13’ 도움 되겠다”



“팀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KIA 타이거즈와 FA 투수 임기영이 3년 계약을 맺으며 끈끈한 동행을 이어간다. 마운드의 든든한 조력자로 평가받는 임기영은 이번 계약으로 팀과 팬들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KIA는 지난 20일 임기영과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3억 원, 연봉 9억 원, 옵션 3억 원 등 총액 15억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이드암 임기영은 2014년 KIA에 입단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팀의 마운드를 책임져왔다.

특히, 그해 한국시리즈 4차전에 등판해 5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팀 통산 11번째 우승에 기여했다.

KBO 리그 11시즌 동안 285경기

에 나서 51승 50패 4세이브 21홀드 평균자책점 4.80을 기록하며 꾸준함을 보여줬다.

올 시즌에는 37경기 6승 2패 2홀드 평균자책점 6.31로 다소 부진하면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승선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팀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KIA는 이번 계약으로 더욱 짜임새있는 불펜진을 구축했다.

앞서 키움에서 조상우를 영입한 데 이어 임기영까지 잔류시키면서 전상현, 곽도규, 최지민, 조상우, 정해영과 함께 한층 두터운 불펜진을 완성했다.

지난달 FA로 팀 통산 12번째 우승의 주역인 불펜 투수 장현식을 LG에 빼앗긴 아쉬움을 최소화한 셈이다.

마운드 전력의 안정화를 꾀한 KIA는 내년 시즌 V13을 위한 구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영이 지난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FA 계약을 체결한 뒤 KIA 타이거즈 심재학 단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임기영은 계약 후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구단과 팬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어 그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구단에 감사하고, KIA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올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한국시리즈 2연패라는 목표에 기여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구단 역시 임기영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KIA 관계자는 “임기영은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팀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내년 시즌에도 팀 마운드 전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새 시즌에 임기영이 보여줄 모습에 쏠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련미와 제구력을 앞세워 다시 한 번 KIA 마운드에서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낼 준비에 들어갈 참이다.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태권 문화 정착”

윤용철 통합 3대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형제 회장’ 눈길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 속 태권도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윤용철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전 송원중 교장)이 통합 3대 광주시태권도협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빛고을체육관내 협회 사무실에서 단독후보로 등록한 윤용철 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여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당선증을 교부했다.

윤 당선인은 “정통 태권인으로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태권도협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학령 인구 감소로 태권도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게 지

금의 현실”이라며 “광주시태권도관장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품새, 격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대회를 유치해 잠재된 태권도 위상을 높여야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유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더해 태권도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광산구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으라차차 건강태권도 교실’의 성공 사례를 본보기 삼아 북구에서도 시행 중인 어르신 태권교실이 동구·남구·서구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통합 3대 광주시태권도협회장에 당선된 윤용철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이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석 광주시태권도협회장, 윤용철 당선인, 윤판석 광주시태권협회 명예회장.

윤 당선인은 2007-2016년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을 역임한 윤판석 광주시태권도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며 광주시체육회 중목단체 최초 ‘형제 회장’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특히 전국체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한 엘리트 태권인 윤 당선인은 명망있는 태권가족으로 이름이 높다.

윤판석 명예회장에 이어 윤용석 전

국기원 연수원장이 형남이고, 고 윤오남 전 조선대 체육대학 학장이 동생이다.

조선대 체육대학을 졸업한 윤 당선인은 송원여상 교장, 송원중 교장, 광주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광주시태권도협회 기술분과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21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코너킥 직접 득점’ 손흥민 카라바오컵 8강 ‘베스트 1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상대로 보기 드문 ‘코너킥 다이렉트 득점’을 때내 팬들을 즐겁게 해준 손흥민이 2024-2025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카라바오컵을 주관하는 잉글랜드 풋볼리그(EFL)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후스코어닷컴이 선정한 8강전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3-5-2 포메이션으로 선정한 베스트 11에서 손흥민은 왼쪽 날개로 뽑혔다.

손흥민은 20일 맨유와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팀이 3-2로 쏙기던 후반 43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섰고, 손흥민이 투입한 볼은 크게 휘면서 그대로 맨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흥민의 득점 이후 1골을 더 실점한 토트넘은 4-3 진담승으로 거뒀고, 손흥민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스포츠클럽 활성화...엘리트체육 선순환 이루자”

광주시체육회, 2024 스포츠클럽 워크숍 성료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9일 ‘2024 광주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광주지역 9개 지점스포츠클럽 사무국장·직원·지도자와 5개 구 체육회 스포츠클럽 담당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은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의식 변화’, ‘스포츠지도 안전관리 계획’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 등 스포츠클럽 운영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진행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선수육성을 병행하며 광주시체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광주시체육회에서 체계적인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의 스포츠클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A, 안방서 NC와 개막전

2025 프로야구 3월22일 플레이볼·KBO, 경기 일정 확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5시즌의 첫 포효를 흠에서 시작한다.

KBO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5시즌 경기 일정에 따르면, KIA는 내년 3월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NC를 상대로 새 시즌의 막을 올린다.

같은 날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하는 2025 KBO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른다.

KIA는 광주에서 NC와의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V13을 향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는 2024시즌 최종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경기로 편성되는 개막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른 구장에서는 롯데-LG(잠실), 두산-SSG(문학), 한화-KT(수원), 키움-삼성(대구)의 개막전 경기가 열린다.

호랑이 군단의 봄 일정은 특별한 선물로 이어진다.

5월5일 어린이날, KIA는 고척으로 건너가 키움과 3연전을 벌인다. 이 시리즈는 7일까지 이어지며, 어린이 팬들을 위한 특별

한 이벤트도 준비될 전망이다.

‘슈퍼스타’ 김도영 등 스타플레이어들이 한데 모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KBO 올스타전은 7월12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스타전 휴식 기간은 7월11일부터 16일까지로 기존 4일에서 6일로 확대됐다.

정규시즌 후반기는 7월17일부터 4연전으로 재개되며, KIA는 V13을 향한 본격적인 질주에 나선다.

팀간 이동거리 및 마케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편성하는 원칙에 따라 2025시즌에 KIA는 홈 71경기, 원정 73경기를 치르게 된다.

한편, KBO는 개막 2연전과 올스타전 휴식이 직후의 4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3연전으로 편성했다.

8월31일까지 팀당 135경기를 우선 편성했고, 미편성된 45경기(팀당 9경기)는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와 함께 추후 편성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정인선 회장(맨 오른쪽)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대표팀과 함께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정인선 대한양궁협회 회장 6연임

“LA올림픽도 전관왕 간다”

정인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국 양궁을 4년 더 이끌며 진정성 있는 동행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정인선 회장이 지난 20일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에 당선됐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양궁협회는 이날 선거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정인선 회장을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06년 첫 취임 이후 6연속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정인선 회장이 한국 양궁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협회 행정 운영체계 고도화 및 재정 자립 기여 ▲국가대표 지원 및 우수 인재 육성 ▲국내 양궁 저변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

다.

정 회장은 2005년 5월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업 경영을 양궁에 접목해 양궁협회를 국내 스포츠단체 중 가장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한국 양궁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다고 인정받고 있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공정, 투명, 탁월’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대한양궁협회 행정 체계를 선진화하고,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확립했다.

또한 유소년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했으며 양궁의 대중화를 위해 초·중등 방과후 수업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스포츠 외교를 강화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였다.

정인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에 5년 연속 선임돼 아시아 양궁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